

오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오늘의 주요기사

2-3 겨자씨인도자수련회
4-5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6-7 청년부 여름수련회

7 사임인사
8-11 비전트립
12 중보기도학교

12 가정예배학교
14 (사)섬김과나눔
15 십자말풀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
그곳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낮선 우리를 뜨겁게 맞아주신 그 자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만남의 순간

설렘 가득한 만남의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드넓은 자연을 바라볼 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여정

발걸음마다 좋은 일기가 함께하고,
그들이 내민 손길에는 해맑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뜨거움이 넘쳤고,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할 때면,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비전,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찬양과 감사

내 마음의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노래,
그 순간의 감동과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실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비전트립의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코스타리카팀



겨자씨인도자수련회
금요일 저녁집회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선교의 역사

지난 120년 역사 속에서 20세기 초에 강력한 세 번의 부흥이 있었다. 1904년의 영국 웨일즈, 1906년에 아주사, 1907년 평양의 부흥이다. 이후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1차 선교대회가 열렸다. 그 당시 주제는 ‘우리 세대에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였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교회들이 선교에 결단하고 헌신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

1930년대부터 주님께서는 선교단체를 세우기 시작하신다. 1970년대에는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신다. 랄프윈터라는 분이 ‘미전도종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0/40 windows’가 제시되었다. 1995년 제시된 ‘Joshua Project’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주님 오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의 가속화

AD30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인구의 90%가 미전도종족이었다. 주후 세계인구의 10%를 복음화하는데 1900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후 백 년이 지난 2010년에 세계인구의 65%가 복음화되었다. 1900년 동안 복음화 속도보다 6.5배나 빠른 속도로 100년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밀과 쌀

세상은 밀을 먹는 사람들과 쌀을 먹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밀과 쌀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밀은 심는 곳에 다시 심는 연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쌀은 연작이 되며 쌀이 밀보다 영양가가 높다. 밀에 있는 글루텐은 쌀을 찌우고 알러지를 일으킨다. 그런데 유럽은 석회석 토양과 기후로 인해 쌀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밀은 땅을 나누어서 경작해야 한다. 단일작물만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의 양이 적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물교역이 필요하다. 물물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식이 아닌 초식동물을 키운다. 언어도 경제적인 언어를 쓰며 수직적, 제국주의 선교를 한다.

쌀은 다양한 작물을 혼작할 수 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물교역이 필요없고 대신 공동체를 만들고 잡식동물을 키운다. 은유적 언어를 쓰고 존칭이 발달되었다. 수평적, 함께하는 선교를 한다.

지금까지는 밀을 먹는 사람들에게 의해 복음이 확산되었다. 21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1위는 중국(10만 명)이다. 2위는 인도(8만 2950명)이다. 3위는 미국(4만 명)이고, 4위는 한국(2만 2014명)이다. 이제는 쌀을 먹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농촌에 간다고?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식량, 에너지, 교육, 주택을 자립하는 자립형 농업 공동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풀이 계속 자라고 몸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경작하는 논과 밭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양계

닭은 30년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셨다. 암탉

은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1,200개 ~ 3,800개의 알을 가지고 태어난다.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다. 6개월 지나면 26시간 사이클로 알을 낳는다. 닭은 작은 토지에서도 시작이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가 양돈의 1/10 정도이며, 종교와 국가에 상관없이 다 먹는다.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약취가 나지 않는 양계, 최대한 저렴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양계, 그리고 한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계를 하고 이런 가정이 10가정 모이면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양계를 할 수 있다.

양계장

양계장에서 더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면 양계장 양 옆으로 공기가 밀려들어온다. 양계장의 30%정도만 햇빛이 비치게 하면 나머지 70%에는 그들이 생긴다. 그들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더운 날씨에도 상대적으로 시원해진다. 더운 지방에서도 양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닭은 총배설강 하나만 있어서 똥과 오줌을 같이 쉰다. 바닥을 발효바닥으로 만들면 닭이 싸는 똥은 바닥에 있는 미생물에게는 양식이 된다. 두세시간이 지나면 똥이 사라지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미생물들에 의해 닭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닭의 색도 좋아진다.

암탉 500마리를 기른다고 하면 평균 80%면 하루 400개의 달걀을 얻을 수 있다. 1개에 1,000원씩 팔면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다.

풍력발전기, 태양광조리기, 정수기

지름 2.4m의 풍력발전기를 1시간 돌면 1kW의 전기가 발생된다. 직접 만든 풍력발전기로 얻은 전기를 이용하면 한달에 전기료가 900원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식량의 문제가 있다. 또한 예수님 없는 지역은 밤이 되면 어두움이 있다. 에너지의 문제, 물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전세계를 다닌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양계장을 세우고 닭을 키운다. 중국의 한 소학교에 세워진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을 아이들에게 먹인다. 주일에도 달걀을 먹기 위해 학교에 오니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다보니 그 학교 교실이 예배당이 되었다. 예배당을 짓지 않고 양계장을 지어 생계를 이어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다.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의 자립 도구

우즈베크,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요르단, 시리아 난민캠프에 세워진 양계장은 선교사의 자립 도구가 된다. 풍력발전기도 세우고 농업도 교육한다. 돈이 없는 선교사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다. 그곳에 양계장을 세우고나니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없어졌다. 세금을 내지 못해 빼앗기게 된 기독교 수도원에 양계장을 세우니 달걀을 팔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양계장으로 인해 한 지역이 바뀌게 된다. 세네갈 모래밭이 농지로 바뀌고 아프리카에 치킨집을 만들었다. 18명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다른 가게 월급의 120%를 주고 십일조를 반드시 하게 했다. 그 목회자는 자립이 되었다. 치킨집이 한 교회의 자립 도구가 되었다.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실 때, 주의 성령이 교회와 인생을 주관하실 때, 사람들이 이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전교인 특강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교회 일꾼 '뵈뵈'를 통해 본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곧 우리의 사명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자, 나를 일꾼 삼으시고 크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뵈뵈'는 성경에서는 단 두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녀의 삶과 역할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녀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로, 그리고 보호자로 소개합니다. 이 세 가지 묘사는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1. '뵈뵈'는 교회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뵈뵈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그녀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교회의 존립과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바로 이 일꾼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사역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전반적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뵈뵈'가 보여준 헌신적인 일꾼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을 이끌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임감과 충실함을 상기시킵니다.

2. '뵈뵈'는 우리 자매다

사도 바울이 뵈뵈를 "우리 자매"라고 부를 때, 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친밀함과 소속감을 나타내며, 바울이 '뵈뵈'를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단순히 권위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뵈뵈'는 교회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성도들을 돌보고 이끌어갔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뵈뵈'는 신뢰받는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서 섬기며, 그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3. '뵈뵈'는 보호자다

'뵈뵈'를 "보호자"로 부른 바울의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는 '뵈뵈'가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고 지킨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종종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힘든 여정을 걸어야 했는데, 그런 그에게 '뵈뵈'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의 행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도전과 내적인 문제 속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끌 수 있는 강인한 마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뵈뵈'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 본질에서 멀어진 경우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뵈뵈'처럼 순결하고 빛나는 삶을 따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교회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뵈뵈'의 삶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처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게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뵈뵈'는 단지 성경 속의 한 인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뵈뵈'처럼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귀한 말씀의 잔치에 함께 한 유소년부 아이들

*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SOS! 라파 구조대! (출15:26, 사53:5, 살전 5:23)'라는 주제로, 죄로 인해 창조질서가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이 남겨진 세상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치유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초등1~2학년)는 7/27(토)~28(주일),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었고, 초등부(초등3~4학년)는 7/26(금)~28(주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홍천 가람리조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소년부(초등5~6학년)는 7/26(금)~28(주일), 1박 3일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와 각 선교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라파를 만나며, 서울지역 기독교 역사탐방과 기독교 뮤지컬도 관람했습니다.

* 유소년부 EM(English Ministry)

유소년부 EM은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 (Rom. 5:10)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는 어린이로 세우고자 7/20(토)~21(주일), 24(수), 무박 2일을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VBS(Vacation Bible School)가 열렸습니다. opening worship으로 시작을 알렸고, 4개의 그룹 활동(station activities)으로 이어졌습니다. EM VBS는 유소년부 아이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어린이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2024년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로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소년부의 모든 여름사역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총괄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EM(English Ministry)

아이들에게 배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쁨

“선생님, 이거 하나 더 만들어도 돼” EM VBS(Vacation Bible School·여름성경학교) 첫 날, 스낵스테이션 첫 번째 타임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왔을 때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 넘는 준비 기간 이어져 온 일말의 걱정과 불안이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안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낵스테이션 팀은 이번 여름 VBS 주제인 ‘Diving into friendship with GOD’에 맞게 과자와 먹거리를 활용해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의미가 잘 전달될지 걱정했지만, 마지막 한 아이까지 즐겁게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순탄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도, 모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VBS의 모든 순간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영원히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줄까’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제 안에 먼저 기쁨과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으로 일하시는 목사님과 동료 선생님들을 보

면서 감사했고, 새로운 배움도 얻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은 뒤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온 첫째, 일상 때문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제가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설렘과 기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경험이었습니다.

VBS에서 아이들은 진정으로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액티비티는 물론 찬양할 때도,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도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지친 저 같은 어른들만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제가 도리어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이들이 이번 VBS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해 앞으로 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김영인 교사 / EM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유년부

나의 유년시절을 떠올리는 행복한 날

여름 하늘을 닮은 유년부 라파구조대의 하늘색 단체복이 마음을 더욱 두근거리게 한다. 두 눈을 반짝이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아이들. 선생님들께서 열심으로 준비한 연극도 재미있게 즐겼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공과공부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우리 아이들. 운동장 곳곳에 준비한 센터 학습에 아이들의 응원소리는 커지고 송글송글 맺히는 즐거움의 땀방울!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물총놀이 시간. 소나기까지 제때 내려주어 우리 아이들은 흠뻑 젖은 옷으로 더욱 신나게 물총을 쏘아댄다. 혹시나 다치는 아이가 없길 기도하며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한 가득.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감사하게 마무리된 물총놀이.

달란트 잔치가 시작되자 각자 갖고 싶은 선물을 한 아름 들고서 여름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다.

좋은 날씨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큰 감사. 센스만점 강요한 전도사님과 장로님, 뒤에서 애쓰신 권사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함께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리라 믿는다.

문득문득 나의 유년시절 즐거웠던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리는 행복한 날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었길 기도한다.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유년부 화이팅!

김경주 교사 / 유년2부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
소년부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을 전파하는 구조대

금년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는 학생 97명, 교사 24명, 학부모 스텝 6명, 일반 스텝 3명 합 129명이 하나가 되어 ‘SOS. 라파 구조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특징은 외부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교회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숙식을 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히, 교회 현관 앞에 거대한 수영장을 설치하여 물놀이를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의 즐거운 미소는 끊이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별로 나누어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배제학당, 정동국제, 이화학당 등)를 탐방하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배우고, 신앙의 선배님들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모든 학생들이 아트홀에 모여 ‘ABBA(다메섹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긴 유다 선지자의 삶을 다루는 뮤지컬)’을 감상하였는데, 모든 학생들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면서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SOS. 라파 구조대’라는 주제로 열린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면서, 모든 아이들은 물론 모든 선생님들도 치유의 예수님을 체험하였고,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라파 구조대’가 되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을 전파하는 구조대가 되기로 결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윤승진 교사 / 소년2부



청년부
여름수련회

가장 가치있는 기도를 향한 청년들의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하에 2024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기도가 우리 자신을 넘어 공동체와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MVP, 즉 가장 가치 있는 기도(The Most Valuable Prayer)를 향해 약 150여명의 청년들이 원주 로템힐링타운으로 향했습니다.

1일차 _ 8월 23일(금)

정구민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와 특강으로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됨에 대하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후엔 조모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조장과 부조장의 인도하에, 청년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께 답장을 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대화 편지를 쓰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일차 집회에선 연세대학교 김정형 목사님께서 ‘예수의 꿈’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2일차 _ 8월 24일(토)

2일차 아침은 큐티로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1절에서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한 내용을 묵상하며 조원들과 이야기하고 나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의교회 청소년숲을 섬기고 계신 임경순 목사님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일상의 삶에서 실천으로 열매 맺는 웨이브메이커가 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후 조모임에서는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공동체 프로그램 순서였습니다. 공프(공동체 프로그램) 스텝들이 수련회 약 한 달

전부터 준비한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합심하여 미션을 해결함으로써 협동심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온 지 얼마 안되었거나 수련회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평소 다른 지체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던 청년들도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2일차도 역시 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형 목사님께서 ‘예수의 기도’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도를 통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 주님의교회를 두고 기도하였고, 조별로 한 사람씩 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되는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3일차 _ 8월 25일(주일)

원주에서 다시 주님의교회로 돌아오는 수련회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년들은 퇴실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원주 예배당으로 모여 수련회를 섬겨주신 모든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으로 무사히 도착하여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정형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눈물’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우리들의 시선이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의 마무리는 조모임이었습니다. 롤링페이퍼 편지를 쓰며 수련회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삶을 격려해주었습니다.

여름수련회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도(MVP)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주님의교회 청년공동체가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욱 웨이브메이커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정연 임원단 회장 / 청년부



청년부
여름수련회

가장 가치 있는 기도란 ‘진실한 소통’이다

가장 가치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청년부는 ‘the most valuable prayer’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미리 기도 노트를 제공하여,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서 수련회가 더욱 기대되었고 준비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첫날 시작하는 특강1시간부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신생아가 울음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며 표현해야겠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기도회 시간입니다. 준비한 기도 노트를 보며 천천히 나의 말로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조원들이 대다수였는데, 함께 손을 대고 기

도해 줄 수 있음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기도노트에 적진 않았지만 기도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사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기억나게 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들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들을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MVP는 ‘진실한 소통’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기다리는 것, 내 만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쏟아내는 일방적인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기도란 무엇인지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나라를 구하며 친밀함 속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내길 마음먹어봅니다.

기영란 청년 / 청년부

청년부
여름수련회

받았던 감사, 나누었던 기도제목이 되새기며..

올해 청년부에 등록하여 주님의교회에서 참가한 첫 여름수련회였습니다. 오랜만에 2박3일동안 자고 오는 여름수련회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어 걱정과 기대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든든한 스텝들 덕분에 회의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동체 프로그램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내내 즐거워할 지체들을 상상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Most Valuable Prayer(이하 MVP)여서, 여름수련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름수련회 장소인 로렘힐링타운 시설과 공간이 너무 좋아서, 모든 일정이 잘 흘러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기도'에 대해 더 열심히, 많이 해야 한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

손한 었드림인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강, 집회, 조 모임 시간이 끝날 때마다 여름수련회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상에 돌아와서도 여름수련회 때 들은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귀결되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공동체 프로그램이 즐거웠다고, 고생 많았겠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도 공동체 프로그램 스텝으로 섬겨, 함께 감사를 누리길 ♥ MVP 여름수련회 때 결심하고, 받았던 감사,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계속 되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림 청년 / 청년부



사임인사

하나님께서 귀한 때에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해 주신 주님의교회 가족분들 인사드립니다. 청년부 정구민 목사입니다. 2019년 말 청년부 총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설레임이 사임을 한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으나 그만큼 사랑하는 청년들과의 사역이 참 즐겁고,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부 전체 살림을 책임진 임원단 보금이들, 산림청, 피치, 물보라, 주파수.

너무도 귀한 소그룹에 열심을 낸 비전힐, 드림힐, 조이힐의 코셀리더들과 셀리더들.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녹아져 있는 사역팀 리본새가족팀, 프리즘사진팀, DLD워십팀, 콘텐츠크리에이팅팀, 브릿지과이어팀, 스텐바이방송팀, 새벽이슬찬양팀, 예배진행팀, 리빌드통일선교팀, 사랑나눔팀, 글

로리웨이브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사랑해주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신 부장님들.

그리고 부족한 총괄 교역자 챙기느라 고생한 이충만 목사님, 조수희 전도사님, 김세연 전도사님까지 청년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행복한 목회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대구청산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해야 함에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의교회에서의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주님의교회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주님의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민 목사 / 청년부



The collage consists of eight photographs arranged in two rows of four. The top row shows a large group of people posing on a stage with a blue backdrop and a banner for the '2024 Philippines Vision Trip'. The second photo in the top row shows a group of women in pink shirts posing together. The third photo shows a group of people standing in front of a large red cross sign. The fourth photo shows a group of people in blue shirts posing outdoors. The bottom row shows a group of children and adults, a man interacting with a woman and child, a group of women in pink shirts performing on stage, and a group of people with children and supplies.

비전트립
베트남

그 사람들이 복음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새 학기 적응 중인 5월. 비전트립 일정을 알리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지만 비전트립을 떠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분주한 일상과 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비전트립의 목적과 일정을 위한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준비하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면서 내 안의 염려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평안으로 채워졌다.

18명의 대원들이 효율적인 관리와 이동을 위해 4개조로 나뉘어 움직이게 되었는데 우리 2조의 대장님은(아이와 나는 조장님을 대장님이라고 불렀다) 최연소 참가자인 아이에게 어린이의 눈높이로 컨디션을 살펴주시며 한 명의 훌륭한 대원처럼 아이를 대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워십 댄스와 무언극 등을 준비하며 우리 팀들이 대단한 경험과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숨가빔던 일선에서 물러나 좀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으나 제일 무더운 여름시즌, 열대 국가로 뻥뻥한 일정을 감수하고 떠나오신 이분들이 성경에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겸손히 헌신과 수고로 **남을 더 낮게 여겨주시고 어울려 주시는 모습에서 눈으로 맘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지역 주민의 집에 서툰 페인트칠을 하고, 4개의 지역 위원회를 방문하여 방학중이지만 피약벌에서 1-2시간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새 학기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나눠주며 우리가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나누고** 뿌리는 이 작은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로 맺으실까를 상상하며, 이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제한**

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복음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전에는 미자립 교회였으나 이제는 자립한 바세교회에서 워십과 무언극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지존자의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듯한 감격이 일어났다. 워십 순간순간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찬양의 기쁨** 가운데 그 공간을 **비추시는 따뜻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빈롱교회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긴 시간 신앙의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게임을 하며 웃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우리들을 열심히 배웅해 준 아이들의 빛나는 미소 속에 **우리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팀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40대에 다시 사명을 세우는 이 시간 너는 나의 것이라는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야겠다 라는 거창한 다짐보다는 하나님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에 평안과 자유가 느껴졌다. **지쳐있던 일상 가운데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 날개 쳐 올라가듯 힘주시는 회복과 힐링**의 순간이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협력하여** 뜨거운 땀을 흘린 이번 비전트립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감사-썩임언 드립니다. **추미선 집사 / 8교구**

비전트립
베트남

“나에게 선교란 ~”

- | | |
|--|--|
| ● 주님의 사랑을 물질과 함께 열심히 보내는 자와 보내온 주님의 사랑을 헌신으로 나누는 자의 협력
오세원 (회계) | ● 선교란 힐링이다. 지쳐있던 삶 가운데 독수리가 새 힘 얻어 날개치며 오르듯 힘주시어 힐링케 하셨습니다.
이경혜 (청소년관리) |
| ● 선교란 즐거움이다.
오가현 (영상/중1) | ● 선교란 섬김과 나눔이다.
양은우 (중2/이동관리) |
| ● 선교란, 온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따뜻한 햇빛이다.
허관희 (물품) | ● 나눔입니다.
배애리 (위생/의료) |
| ●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평범하고 순수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며칠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
신민숙 (중보기도) | ● 선교란 배움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신우 (중1/영상) |
| ● 선교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이다.
김종현 (물품) | ● 선교란 부족한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양봉욱 (의료/보건) |
| ● 나라와 민족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통로
이광숙 (인원관리) | ●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차승천 (목회) |
| ●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함께 놀아주는 것
추미선 (청소년헌지아동) | ● 선교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정상기 (위기관리) |
| ●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김태선 (초2/헌지아동) | ●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안정수 (팀장) |
| ● 선교란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피스메이커가 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오랜 시간 전쟁을 겪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송현지 (문서) | ●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고 흘러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사랑 ~ 입니다.
김지선 (행정) |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귀국 후에도 떠오르는 그들의 모습

〈키르어 인사, 러시아어 한 마디〉

“살라마츠스뭇~! 이수스 류비치 바스!” “안녕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나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하 ‘K국’)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중단한 2022년에 동경해오던 비전트립을 줌으로 참가했는데, 주제를 정하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K국 비전트립 컨셉이었습니다. 발표를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도 자연 외에 마음에 담기지 않아, 애꿎은 그들의 역사를 곁집으며 그 속의 필부필부를 그리며 ‘종족구성과 종교’에 대해 짧은 발표를 하였고 그 아쉬움으로 ‘언젠가 가는 비전트립은 K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의 게르와 비슷한 이동식 가옥을 유르트라고 합니다. 유목민의 문화가 바탕이며 90%가 무슬림인데 아랍계 무슬림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동서양이 혼합된 듯 우리네 모습이 25%는 있어 보이는 친밀함이 듭니다. 1991년 이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민족주의를 부활시켰고 부정부패에 봉기한 1, 2차 툴립혁명이 있어서 민주적 불씨를 가지고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K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다〉

비쉬켄 직항이 생겨서 7시간 40분만에 K국에 도착하니 윤선생님 가족과 K국 전통토자 칼팍을 쓴 변선생님 가족이 우리 일행을 반겼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호텔 앞에 짓다 만 건물 뒤로 햇살에 빛나는 설산이 커튼처럼 둘러쳐져 있음에 감탄하면서 저 설산 넘어 다가올 시간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카라콜은 K국에서 세 번째로 변화한 도시이고 그 번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K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인 태목사님이 그의 아버님의 땅에 지은 교회입니다. 과수원 안에 교회와 사택과 식당이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은 도로포장이 안되어 집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로 있지만 키 큰 나무와 과실 나무들은 햇살 속에 빛났습니다. 평소에는 원근각처 흩어져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드리다가 한 달에 한번 카라콜 교회에 모여 집회를 갖습니다. 7월 집회에는 한국팀과 비쉬켄 미르교회 분들과 카라콜 교회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과 삼일 동안 예배드리고 동행한 어린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첫 날 낮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스텐실로 보조가방 만들기, 풍선아트,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녁예배 때는 최소 인원만 아이들을 돌보고 모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남녀노소 커트와 펌으로 아름다운 변신을 시켜주는 이미용팀의 사역은 삼 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한국 팀이 해외에서 핫한 김밥을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대접하고 이스쿨 호수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최소 인원만 어린이들과 비즈공예에 참여하고 모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찍어 출력해서 액자를 만들어주니 가족사진도 찍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스텐실로 한국말을 써서 가방을 만드는 아이와 그 가방이 소중한 어디든 매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체육 활동으로 상기된 작은 얼굴들이 웃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풍선아트 담당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갔음에도 말갈게 리셋되는 재주로 아이들에게 원없이 만들어주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슷하게나마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들의 창의력에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위해 기술을 연마한 이미용팀의 커트와 펌 실력은 외모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 인기여서 예약인원이 넘쳤고 준

비한 펌 약과 헤어 악세사리를 다 소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예배마다 박목사님께서 집회를 열정적으로 인도하셨고 흥 세르게이 목사님이 러시아어 통역을 하셨는데 삼일동안 현지 지체들과 하나 되는 뜨거운 기도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집회 둘째 날은 현지 지체들에게 한국팀이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120년 조금 넘는 한국의 구원 역사 속에서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지만 더 가지려는 소비 풍조와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언어가 달라도 기도함에 문제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분들과 한 분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 놀라운 경험과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회 때 우리 팀원들 사이에 올림이 컸던 현지인 가정 방문입니다. 사역 셋째 날이었는데 언어가 되는 몇 분의 사역자들 제외하고 모두 소통의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로밍을 하지 않아 통역 앱이 안된다는 것과 로밍해도 인터넷 활성이 안되는 가정에 간다면..하는 고민 속에서 점심식사 시간 포함 4~5시간을 현지 지체들과 보낼 계획에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숙소를 출발해서 2~3인씩 한 조로 현지인 집에 내린 후, 김선생님과 태목사님 아들이 현지 가정에 우리를 소개해주고 떠났습니다. WEC 소속 자매와 나는 슬하에 7남매와 12명의 손주를 둔 아이굴 집에 갔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친구’라며 남편의 술버릇과 구타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 읽었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약 색인 표시와 손때 묻은 성경책, 속표지에 빼곡하게 쓴 러시아어를 보니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짐작이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장 12절을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우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사위 아실과 파하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어머니 아이굴의 신앙이 남편과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사랑이 편만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굴은 정성스레 마련한 여름 국수를 대접해주었고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자두와 살구, 라즈베리를 따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그들이 다 정해놓아서 편하게 대접받고 이스쿨호수로 피크닉을 다녀온 후 카라콜 교회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이굴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 감사드렸습니다. 흩어졌던 팀들이 속속 도착하고 폐회예배를 드렸습니다. K국에 6만 20명의 크리스천이 생겨났다고 서로 축하해주었습니다. 평가회에서 현지 가정 방문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 우리들의 배움이 가득해졌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기도와 현지 가정의 가족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서 카라콜 교회가 펼쳐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K국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기도 무릎〉

K국의 카리스마 치과에 치기공사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굳건히 자립하는 치과되어 선교 사역에 순환이 풍성히 일어나도록! 함께 일하는 치과 식구들이 믿음의 한 형제자매되기를! 윤선생님 따르는 제자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자들의 구원과 도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길!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 센터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변선생님 부부의 러시아어 공부에 지혜 주시고 삶이 곧 예배가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길! 기도제목을 안보고도 기도합니다.

윤경자 집사 / 1교구

비전트립
필리핀

필리핀 단기 선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_ 로마서 10:15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마닐라 북쪽 클락 인근 딜라딜라 지역으로 이대혁 목사님, 팀장 전은경 집사님 포함, 22명이 4박 6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1991년 6월 12일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화산쇄설류)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곳 난민촌에 정착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딜라딜라 교회에는 전에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셨던 유성훈 선교사님이 아내인 이경 선교사님과 8년째 사역하고 계시고, 현지의 집 가세스 목사님과 동역 중이십니다. 선교 전에 선교팀은 성령충만을 위해, 선교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지 목회자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성령께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 하나님의 선교

매번 선교를 갈 때마다 ‘짧은 기간 안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해야 성공적인 선교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셨고 ‘선교는 며칠에 불과하지만 일상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선교는 무엇인가 꼭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는 것보다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팀이 서로 격려하고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동역자들

선교팀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셨는데 사역 준비와 진행 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겨 주셔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7.25일 선교팀과 현지 성도들이 두 시간여 동안 네 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물을 나누어주고 주민들을 다음날 이벤트에 초청하였는데 역수같이 내리는 빗속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7.26일 각자 맡은 코너를 준비하여 이미용 봉사, 한국 무용,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비치볼 꾸미기, 한식 나눔, 청년 위십, 쌀 나눔 순서로 네 시간여에 걸쳐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모두가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도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팀의 세 청년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선교팀이 하나되어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기팀이 다녀간 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유성훈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3. 하나님의 아이들

방문 때 만난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벤트 현장에서 보았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과 눈빛에서, 교회 어린이 달란트 잔치 때 보았던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주님이 그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복음이 딜라딜라와 필리핀 온 땅에 널리 전파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났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4. 하나님의 마음

7.27일 아이따 산지 마을 방문 예정이었지만 폭우로 인해 가지 못하고

산지로 가는 강가에서 아이따 마을 알 목사님 일행과 선교팀이 만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폭우로 인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산지 방문이 취소되었지만 주께서 다음에 그곳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집 목사님, 알 목사님, 자이라, 에이시, 살랄릴라, 유리 등 6명의 이름을 알게 되어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5. 하나님께 감사

- 1)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과 교제를 통해 선교사님과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2) 선교팀이 예수 사랑으로 하나되어 유성훈 선교사님과 동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3)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을 섬기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4) 아이들의 눈빛, 얼굴, 모습에서 그들과 그곳을 향한 하나님 뜻, 소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다음의 선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7) 기도 응답에 감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8) 아내 이두선 집사와 함께 선교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9)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인도(5), 중국(2), 태국(1), 튀르키예(2)에 이어 열한 번째 단기선교 다녀오는 은혜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 10) 하늘 보좌 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사랑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 선교를 마치고

이번 단기 선교를 이루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선교 여정 동안 선교팀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딜라딜라와 클락, 아이따 지역과 사람들을 통해 주께서(보여)주셨던 은혜와 소망과 마음을 깊이 간직하여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유성훈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사랑과 섬김,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적용점)

- 1) 선교사님과 가족(이경 사모님, 태욱, 형욱), 사역과 사역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 2) 가능한 방법을 찾아 선교에 동참하고 후원하겠습니다.
- 3) 내년에도 단기선교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4) 남은 생을 사도행전적인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필리핀 선교팀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단기선교팀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홍승길 안수집사 / 2교구

중보기도학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팀이 된 중보기도학교

지난 6월 14일부터 6회(보강 1회 포함)로 진행된 2024년도 중보기도학교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중보기도학교에는 40 여분이 신청하여 38명이 수료하는 등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중보기도의 원리, 중보기도의 모범, 중보기도와 응답, 중보기도와 영적전쟁을 5회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보강 강의에서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강의는 찬송가 한 장을 선택하여 그 찬양에 담긴 배경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곁집으며 부르고 기도하며 시작해 1시간여 동안 매주 주제에 맞는 내용을 나눈 후 조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별 모임 시간에는 서로를 소개하고 각자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요즘 우리의 삶에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등 개인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기도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전반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타자를 위한 기도인 중보적 기도(중보기도)의 필요성과 그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별 모임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던 분들이 나중에는 끝이 나지 않

을 정도로 열심히 나누고, 기도해주시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이뤄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수료라는 까다로운 산을 넘기 위해 꼭 이수하셔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 혹서기 찜통더위를 뚫고 6회 강의 중에 4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두 번째로 필독서(마음으로 하는 기도, 전재윤 목사 저)를 완독한 후 독후감을 A4 2장 이상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책을 내려놓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끝까지 성실히 참여해주시고 과제 제출 또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중보기도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조별로 끈끈하게 하나가 된 모습이 참 아름다워 이분들로 꾸려진 중보기도팀을 신실하였던 것이 또 하나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명은 '에스라'로, 총 3개의 팀으로 꾸려졌는데, 이 팀은 무너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삶을 드리고 백성들에게 주의 뜻과 말씀을 가르쳤던 학자 에스라처럼, 제국의 신임을 받았으니 고관대작을 다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팀'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신앙의 동지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주영 목사



가정사역원
가정예배학교

가까워진 가정예배

‘가정예배’라는 말은 마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마냥, 오르지 못할 나무 마냥 우리 가족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라 느껴졌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정예배학교’를 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온라인 zoom을 이용해서 주 1회 저녁 시간에 가족 대표가 총 5회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니 비록 가정예배는 멀게 느껴질지언정 가정예배학교의 문턱은 낮게 느껴졌다. 그래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신청을 해보았는데 배운환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가정예배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예배학교의 강사는 신형섭 교수님이셨는데 처음 강사 소개를 받았을 때는 교수님이시니 딱딱한 이론 수업인가보다 예상했다. 그런데 뜻밖에 매 강의마다 사경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였다. 교수님 가정에서 매일 드리고 있는 가정예배의 생생한 실체를 예로 들려 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되기도 하였고, 또 그런 가정을 본받아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동기 부여도 되어주었다. 그리고 교회나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대하는 모습,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식이 진정한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의 참 실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정예배학교 기간 동안 매주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내가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던 터라 결석도 하고, 과제를 다 수행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가정예배학교 기간 중이었던 6월 21일부터 시작하여 혼자서라도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것은 노트 한 권을 정해 그날그날의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학교에서 배운 가정예

배의 한 가지 방법으로 (앗, 이거 스포가 되겠는데...)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게 될 때 “우리 기도하고 먹자”하며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짧게나마 함께 기도드리고 먹기 시작한다. 가정예배학교를 마친 후에 수료증과 책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책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난감한 질문 명쾌한 대답’이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이 책이 도움 되기를 기대하며 8월 20일부터는 밤마다 매일 한쪽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짧고 간단한 형식적인 가정예배이기는 하지만,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그 가정예배의 시작이 우리 가정 내에서도 드디어 시작된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비록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 듯하다. 가정예배학교도 그 가운데 하나로 많은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학교에 참여하여 귀한 가르침과 가정예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나정화 성도 / 1교구



가정사역원
가정예배학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자기야 사랑해~ 원아 괜찮아~ 미야 잘했어~”

스윽한 워딩을 실천하는 것이 첫 주부터 주어진 위클리 미션이었습니다. 누워서 떡먹기인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가정예배학교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내 입은 버벅거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미션 완성을 위해 노력해본 결과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매직패드가 깔려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입니다. 주로 아이들의 일과 시간을 마친 뒤에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 워딩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말을 듣는 내가 먼저 주님의 시선을 장착해야 “응~ 괜찮아, 잘했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 엄마이면서 아이들과 만남에서 어느새 그분의 시선을 거두고 살았는지 한참을 생각하고 여러 날 곱씹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곧잘 했는데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남편은 그의 말을 실천하지 않아서 홀로 예배자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었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한글을 못 떼는 것이 고민될 때 시편 말씀을 따라 쓰게 하고 읽도록 하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를 액자에 넣어 ‘기념’하였습니다. 집 한 칸에 세워놓은 ‘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기억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가정예배는 침대맡 기도와 자기 전 껴안고 기도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와 교회에서 들으니 가족이 모여 예배드림은 점차 공부와 시험에 밀려났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여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인도

자인 엄마나 아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임하는 시간임을 듣고 평안했습니다.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느라 시간이 넘어가도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인도자는 자녀가 되어도 된다는 것과 가정이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서 있음으로 예배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가족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가정예배가 됨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정수와 같은 가정예배의 정의에 참 감사합니다.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은 어느 것 하나 더하고 뺄 것 없는 가정예배의 정의를 가르쳐주시면서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가정예배부터 생애주기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배까지 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매주 모임을 인도하시는 배운환 목사님과 환상의 호흡으로 소그룹 나눔도 역동적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배움의 기회를 주신 가정예배학교 기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생을 경험하며 사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되심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윤경자 집사 / 1교구



(사)섬김과 나눔

송파교육복지센터 학생 성장 응원단
'위드유(With You) 멘토단'

관계의 회복 '멘토링'- "뚜르르 뚜르르~ 우리는 연결 중"입니다.

(사)섬김과나눔에서 8년째 수탁 운영하고 있는 송파교육복지센터는 송파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6명의 직원이 90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면서 성장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다 보면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 각자의 생각에 따라 도움 되는 것들이 각기 다름을 느낍니다.

언젠가부터 학교와 지역 기관이 모이는 자리에서 또래와의 관계나 사회성 부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난 뒤 학교 환경도, 사람들의 일상도 회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긴 단절의 시간으로 인해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서비스' 외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와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를 보여주고, 상대가 나를 알아주는 걸 느끼고, 서로 좋아함을 표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누군가가 생겨서 좋은. 학생의 성장 단계에서 꼭 필요한 '관계'. 이것이 학생 성장 응원단 '위드유(With You) 멘토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센터의 도움 요청에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멘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센터와 함께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멘토와 멘티의 감동적인 동행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새싹 나의 멘티

"멘티랑 너무 잘 맞아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제 멘티는 감정 조절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수록 다른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저에게는 '사랑'이에요. 저도 멘토링 하면서 행복감이 올라가는 걸 느껴요." (멘토 임**님)

"멘티가 밝게 웃을 때 제일 좋아요. 이 아이를 조금 더 웃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멘토링을 하게 된 거였구나 싶어요. 저는 많이 놀아줘요. 제게 멘티는 새싹이에요. 아직 어리고 잘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저와 만나는

시간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멘티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게 있어요. 나중에 멘티가 커서 '위드유 멘토링'을 떠올렸을 때 '친구 같은 어른'이었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일상이 너무 단조롭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친구라 조금 안스러웠어요. 멘토링 활동 때 다양한 활동하며 추억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너무 보람 있어요." (멘토 박**님)

연예인보다 더 좋은 나의 멘토 나의 즐거움

"멘티 보호자인데, 아이가 멘토링 요일을 기다려요. 재미있고 즐거워하고 멘토 선생님과 소통하는 게 좋은가 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보여요. '놀아주는 선생님'이래요." (멘티 김**학생 보호자)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지만 멘토 선생님은 좋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20분 걸어야 하지만 멘토링 시간을 아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요. 새 학년으로 올라왔을 때는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제가 옛날보다 밝아졌어요." (멘티 손**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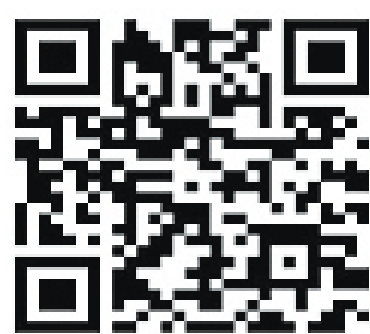
함께해 주시는 위드유 멘토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파구 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게 센터는 앞으로도 '학생 성장 응원단'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쳐있는 학생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들이 학교-지역-응원단들과 함께 손잡을 수 있게 통로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아 아이들이 숨겨진 능력들을, 자기다움을 빛낼 수 있게 힘을 모아보자고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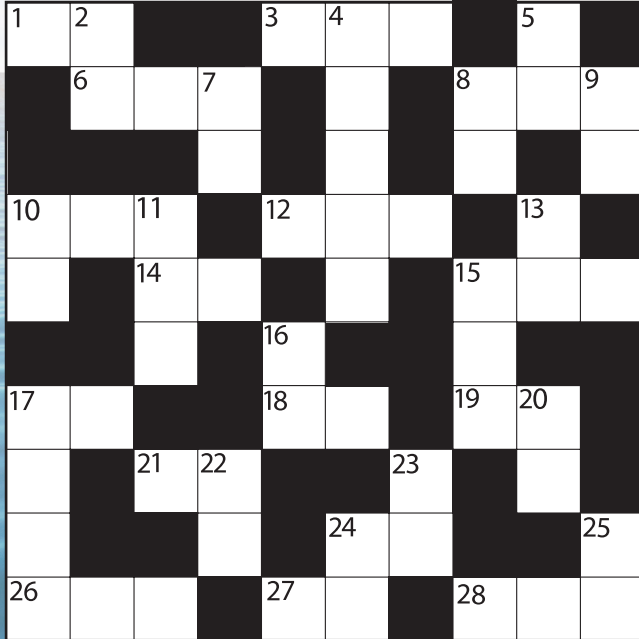
학생을 함께 응원하고 관계를 통한 회복의 과정을 함께 할 '위드유(With You) 멘토단'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전교육 이수 후에 주 1회 또는 격주 1회씩 6개월 이상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 및 세부 내용은 Q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2-414-7982/ www.spewc.net

(사)섬김과나눔

자원봉사자 신청
및 세부 내용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요나 편

이번 호는 <요나> 편입니다. <요나>의 저자는 북왕국 여로보암2세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 사흘 후에 살아나온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8호 '오바다' 편 정답



가로 힌트

1.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55km 지점에 있다. (욥 1:3)
3. 무엇인가를 수습하다, 수확하다, 모으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 가소서." (욥 4:3)
6.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항구 도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이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 (욥 1:3)
8. 어류를 두루 부르는 말. 어류는 물속에 사는 척추동물로, 유선형이며 아가미로 호흡한다. (욥 2:1)
10. 40일. 삼십 구일보다 하루 많은 날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욥 3:4)
12.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청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 (욥 1:6)
14. 어떠한 이유로. "네가 이 박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 옳으냐 하시니." (욥 4:9)
15.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존재이다. (욥 3:3)
17. 남의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 성경에서는 대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또는 그 교훈을 뜻한다. (욥 1:1)
- 18.윗사람에게 알림. 아랫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하달'이라고 한다. (욥 1:2)
19. 밤과 낮을 더불어 부르는 말. '하루종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욥 1:17)
21. 사람의 말소리. 언어학에서는 음향과 구분하여 음절로 구분할 수 있는 소리를 뜻한다. (욥 2:2)
24.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하나님을 경배하여 제물이나 예물을 올려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욥 2:9)
26. 요나의 아버지. 나사렛 북동쪽 가드헤벨 출신이다. (욥 1:1)
27. 미리 준비하여 갖추어 놓음. 또는 무엇인가 하거나 되기 위한 사전 단계를 뜻하기도 한다. (욥 4:6)
28.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르는 말. 건너오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왔다고 하여 이런 별칭을 붙였다. (욥 1:9)

세로 힌트

2. 지구 위에서 대륙이 아닌, 아주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곳. 한국에는 같은 이름의 가수도 있다. (욥 2:5)
4. (무엇인가를)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여.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욥 1:16)
5.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애를 씀. 몸이나 마음으로 노력이나 고생을 하는 것을 뜻한다. (욥 4:10)
7. 무덤을 뜻하는 말. 땅 밑 세계, 또는 죽은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욥 2:2)
8. 바다나 호수 위에 바람에 의해 생기는 규칙적인 모양. 때로 파도를 뜻하기도 한다. (욥 2:3)
9. 하나님에게 아뢰는 성도의 대화. 회개, 감사, 간구, 중보, 찬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욥 4:2)
10. 배를 부리는 사람. 대개 노를 저어 배를 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욥 1:5)
11. 몸을 일으켜. 잠에서 깨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동작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욥 1:2)
13. 아맛대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에게 삼켜졌고, 삼일 후에 나왔다. (욥 3:3)
15. 하루의 밤. 짧은 시간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욥 4:10)
16. (무엇인가를) 높이 보고 소중하게 여김.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욥 2:8)
17. 어떤 원인이나 이유로 인하여. "이 재앙이 누구로 ○○○○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욥 1:7)
20. 높지 않은. 신분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욥 3:5)
22. 신성한 건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의미한다. (욥 2:4)
23. 고맙게 여김.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욥 2:9)
24. 여럿 가운데 하나씩을 뽑아 순서나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 가을이면 강남에 가는 새의 이름이기도 하다. (욥 1:7)
25. 사람이나 동물이 어우러져 있는 한 때. "○○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욥 1:14)

